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지부교섭 속보 15호

2020.10.19.(월)

□발행처: 교육선전부 □발행인: 김정태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 043-236-5077 □http://dc.kmwu.kr

[15차 지부교섭_추가 제시안 없음]

보쉬 용인본사로 간다!

다음주까지 제시안 준비 못하면 보쉬 본사에서 교섭 진행



한달째 제시안이 없다!

15일(목) 15차 지부교섭이 열렸지만, 사측의 제시안은 없었다. 9월 17일 교섭 이후 한달만에 열린 교섭이었는데도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중앙교섭에서 합의된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는 현재 각 사업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들도 합의안에는 못 넣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용자들은 지부교섭 타결의지가 전혀 없다.

올해 넘겨도 상관없다!

여름휴가, 추석까지 넘긴 상황에서도 타결의지가 없다면 연말까지 넘길 수도 있다. 지부도 급할 것 없다. 11월에 정부의 노동법 개악이 예정된

상황에서 오히려 쟁의권 가진 상태에서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다음주부터는 용인으로 간다!

지부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사측 제시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쉬 용인본사로 직접 찾아가서 교섭한다. 공직취임 등 지부교섭 요구안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보쉬자본을 직접 찾아가서 교섭한다.

지부는 지난주 보쉬 용인본사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이번주는 한온시스템의 대주주인 한앤컴퍼니 규탄집회를 연다. 앞으로 지부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자본을 상대로 직접적인 타격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15차 교섭 속기록

다음주까지 제시안 마련하라

노 : 교섭을 올해 넘길 생각 있나? 중앙 합의안은 수 용해야 한다. 공직취임도 지부가 양보할 수 없다. 법 에 위배되지 않고 채우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는데도 안돼서 답답하다. 어제 용인도 갔다왔고 다음주는 한 앤컴퍼니 앞에서 지부 확산 집회할 예정이다. 지부가 쟁의권 계속 갖고 있으면 좋다. 11월에 노동법개약 총파업도 예정되어있다. 시간은 노조 편이다. 사용자 가 시간 끌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월 안에 마무리하자. 우리 충분히 양보했다. 오늘이라도 합의할 수 있으면 하자. 안될 거 같으면 오늘 교섭 마무리하자.

사 : 이렇게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부교섭 참석한 임원으로서 안타깝다. 지부장님이 개별기업 대 표이사 만나고 노력하는데 마땅한 답신이 안나와서 교섭위원들도 힘들 것 같다. 진짜 많이 늦었다. 사용 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노 : 오늘은 제시안 없다는 거죠? 그럼 다음주부터 용 인 보쉬 본사에서 교섭하자.

사 : 회사별로 검토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 안이 나오지 않으면 서로 시간 낭비만 될 것 같다. 이 런 사태로 교섭 차수만 늘려야 하는지 오늘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한다.

노 : 그건 사용자끼리 논의할 일이다. 주1회 진행은 그대로 하고 용인에서 하지는 제안이다. 사업장 출입, 감염병 조치들 이미 다 하고 있다. 이것도 수용 못한 다고 하면 답답하다. 합의된 내용이 큰 사업장은 부담 되는 내용이 없다. 보쉬나 한온이 부담되는게 있나?

사 : 중앙교섭도 사용자는 다수결 투표로 의견접근안 동의했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지역 사용자가 부담받는 것도 이해해달라. 사업장 출입, 노 동조합 활동 보장은 확장성이 크다. 쟁의기간 중 징계

및 전출을 못한다는 건 간신히 동의된 조항이다.

노 : 노조과피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노조 가입범위가 사무실 노동자까지 확대되면서 쟁의 중 전출이 문제가 될 소지가 더 커지고 있다.

사 : 지금 합의된 내용은 광범위한 의미다. 쟁의와 관 련 없어도 전출이 아예 안될 수 있다.

노 : 업무상 필요하면 지회장과 논의해서 풀 문제다. 업무상 전출인지, 보복성 전출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안 다.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대해서 회사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회의록에 남겨도 좋다. 여기 앉아있는 교 섭위원이 위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데 곤란함 이 있다고 하면, 보쉬 용인본사 가서 지부가 직접 요 구하고 교섭하겠다. 우리는 사용자가 만나와도 용인으 로 가겠다. 타결 의지있으면 용인으로 오셔라.

사 : 교섭 장소가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관례대로 하자. 갑작스레 용인에서 하지는건 재고해달라.

노 : 충분히 보쉬 대표에게 얘기했다. 한달 동안 제 시안이 안나왔다. 우리는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보쉬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교섭까지 제시 안 낼 수 있으면 하겠다.

사 : 다음주까지 정리해보겠다. 준비하겠다.

노 : 수요일까지 답변보고 목요일 교섭 장소 정하겠 다. 이 많은 사람이 매번 검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교섭에 와서 시간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 용인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부교섭에서 안풀리면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해야 답 이 나올 것 같다. 나머지 사업장은 무슨 죄가 있나? 계속 시간만 달라고 하면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하나? 노사관계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